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09-163호)

마이다스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2009년 07월

Fund Facts

투자 목적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을 축적하여 주가하락위험을 줄이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운용개시일	2002-04-19
펀드 규모	775 억원
총보수	A1-선취1%+연1.24% /C1- 연2.49%
환매수수료	A1-없음 / C1-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펀드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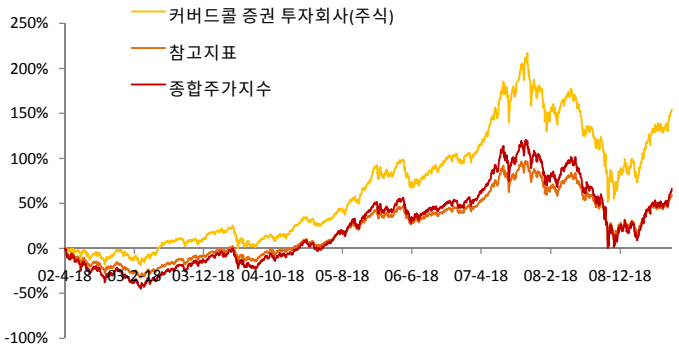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커버드콜 증권 투자회사(주식)	9.67%	13.02%	32.74%	7.79%	154.28%
참고지표	9.13%	10.62%	26.16%	-0.43%	61.23%
초과수익률	0.54%	2.40%	6.58%	8.22%	93.04%

※참고지표:KOSPI변동률*75%+CD금리*25%

※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A1 기준임.

수익률 추이

(2002.04.19~2009.07.31)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7월 한 달간 펀드 수익률은 9.67%였으며 참고지표는 9.13% 상승하여 참고지표대비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90% 초반대로 주식 편입비중을 늘렸으며 자산배분 보다는 순환매 참여에 따른 추가이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가의 급등으로 콜옵션 매도로 부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만, 펀드 수익률은 참고지표를 능가하였습니다. 상대성과가 양호했던 요인은, 은행,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등 상대성과가 좋았던 업종의 편입비중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음식료, 유통, 제약, 유틸리티, 기계, 운수창고, 건설업종에 대한 주식편입비중이 낮았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대형주 위주의 매수에 대응하여 시가총액 상위종목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점도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주식 시황 및 자산배분

7월 주식시장은 2분기 실적 시즌 기업들의 어닝서프라이즈(예상치보다 높은 실적), 외국인들의 연중 최대 규모 순매수 등 에 힘입어 종합주가지수가 1,500선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기업들이 비용절감 효과 등으로 어닝서프라이즈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각국 정부들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가 실질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은 작년 하반기 급격한 금융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 상반기 중국 중심의 경기회복에 이어서 선진국의 자산 가격 안정화와 소비 회복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의 긴축정책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의 논란이 있으나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머징마켓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저금리 지속 현상으로 인해 경기 회복과 더불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은 은행, 증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주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개별 화학, 통신주, 음식료 업종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현재 펀드에서 주식편입비율은 90% 초반에서 95%까지 움직이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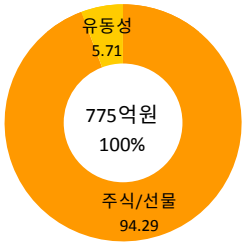
종목 선택

포트폴리오 중에서 업종별 수익률은 은행,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하였고, 음식료, 유통, 제약, 유틸리티, 기계, 운수창고, 건설업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우리금융, 신한지주, 하이닉스,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넥센타이어, 대한항공, 대우중권, KB금융, 우리투자증권,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제철등의 투자실적이 좋았던 반면, 엔씨소프트, 오리온, LS, 글로비스, KCC, 효성, 웅진씽크빅, 한진중공업, LG이노텍, 삼성테크윈, LG하우시스, 삼성SDI, 웅진코웨이, NHN, SK에너지 등의 투자실적은 저조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주요변경 내용은 현대모비스, 신세계, 동양종금증권, LG이노텍, 유한양행, 한국가스공사, 서울반도체 등을 신규편입하고 삼성정밀화학, GS건설, 고려아연, 엘앤에프, LS산전, 풍산, 대림산업, 일진전기, 현대H&S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주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7월 만기 콜옵션은 행사가 192.5에 매도하였으며 7월 옵션 만기일 KOSPI 200지수가 184.72로 종료됨에 따라 매도 콜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옵션 프리미엄 수입을 펀드수익으로 실현하였습니다. 8월물 콜옵션은 197.5을 행사가로 하는 종목을 매도하였으며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나 최종 매매손익은 8월 만기일에 확정될 것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경우 펀드 수익률 상승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주식시장이 횡보하거나 완만히 움직일 때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효한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상위보유종목

(순자산총액 비중 45.79%)

삼성전자	13.07
POSCO	5.83
현대차	4.69
LG전자	3.89
신한지주	3.41
KB금융	3.23
한국전력	3.03
KT	2.99
SK텔레콤	2.94
LG디스플레이	2.70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